

이날 환율은 전일 대비 0.50원 오른 1,119.10원에 장을 마감

한편 이날 마감시점의 원-엔 재정환율은 1,012.53원을 마감하였다.

북미 정상회담 결과 대기 속 월말 수급에 따라 1,110원 중후반 중심 등락 예상

간밤 뉴욕 증시는 핵 보유국인 인도와 파키스탄의 무력 충돌에 위험자산 선호 제한됐고 금일 역시 분쟁이 격화하는 쪽으로 뉴스가 나올시, 달러원환율은 1,120원 부근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중국과의 무역 문제는 중국의 미국제품 추가 구매 약속만으로 해결하기에 너무 중대하다고 언급하여 이에 금일 달러원환율은 소폭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예정된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 동결이 예상돼 서울환시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 총재의 발언 수위에 따라 달러원 소폭 등락할 여지는 있다. 가장 큰 이벤트인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하노이 선언이 나오기 전까지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실수요 위주의 장세 보이며 1,110원 중후반 중심 등락 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572.83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불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1.00원 ↓

■ 美 다우지수 : 25985.16, -72.82p(-0.28%)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65.1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572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